

펄프종이기술 특별인터뷰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지휘자 임상섭 산림청장

펄프제지산업은 원료인 목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안정적인 원료수급 여부는 펄프제지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면적이 전체 국토면적의 약 63%에 이르며, 임목축적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165m³를 상회하고 있지만 국산목재자급률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조림과 산지관리를 통하여 산림녹화를 달성한 우리나라는 이제 산림자원의 경제적 활용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펄프종이기술은 우리나라의 산림전반에 대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임상섭 산림청장을 만나 앞으로의 산림정책방향을 들었다.

펄프종이기술: 임청장님, 반갑습니다. 펄프종이기술 독자 여러분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산림청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모두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청장님 약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998년에 산림청에 입사하여 27여년간 산림공직자로 재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및 도시숲 팀장과 목재산업과장, 휴양치유과장, 병해충과장 등을 거친 후 2016년에 동부지방산림청장을 역임

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 산림산업정책국장, 기획조정관, 산림보호국장을 수행한 후 2022년에 제32대 산림청 차장으로 취임하였고, 2024년 7월에는 제35대 산림청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펄프종이기술: 정말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셨고 또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목재산업과장으로 근무하실 때의 역할이 관심이 가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요?





“목재이용법 제정으로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임상섭: 목재산업과장으로 근무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 특히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당시 목재는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저감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에서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 위주로만 다루지고 있었습니다. 「목재이용법」을 2012년에 제정함으로써 국산목재 이용 확대, 목재이용 인식 개선과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기에 특별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펄프종이기술: 산림청은 산하기관도 많을 뿐 아니라 임업 단체 및 관련산업도 많기에 정말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산림청장으로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는 무엇인지요?

임상섭: 저는 취임 이후 우리 산림을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산림’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숲이 제공하는 목재를 비롯한 임산물을 가치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고,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튼튼하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함과 함께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관리도 철저히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펄프종이기술: 일반 시민은 제지산업을 (1) 지속가능한 원료를 이용하며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친환경 산업으로 인식하거나, (2) 산림벌채로 원료를 얻기에 산림을 해치는 산업이라는 크게 두가지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산림녹화와 산림보호라는 슬로건이 오랜 동안 각인되어 있어서 갱신이 필요한 산림을 이용하는 것에 무조건적인 반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산림은 가꾸는 것과 함께 노령화된 산림은 갱신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 국민들의 인식은 나무를 베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이런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이런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임상섭 청장: 경제적으로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목재 등 경제적 자원으로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하여,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I LOVE WOOD’ 캠페인 등 국산목재 이용의 탄소중립 기여효과를 알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한목’ 브랜드를 전파하기 위해 디자인 공모전을 시행하거나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참여형 홍보를 추진 중입니다.

펄프종이기술: 2021년 산림청의 지원으로 합법목재 교역 촉진 대상품목으로 펄프, 종이, 판지류를 포함시키기 위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국내 제지업계는 한국산림인증(KFCC), PEFC, FSC 등 인증을 받은 펄프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국내의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생산된 펄프가 국제적으로 인증을 획득하는 데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산림 가운데 한국산림인증(KFCC), PEFC, FSC로 인증된 곳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 산림청에서는 이를 확대시키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유림의 산림관리인증 면적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상섭: 산림인증은 지속가능하게 산림이 관리되고 목재가 생산되는지에 대해 검증하고 인증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국내 전체 산림면적 중 11% 이상 규모의 산림이 산림관리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우리나라 산림인증제도인 한국산림인증(KFCC) 면적은 70만ha, FSC 인증 면적은 3.6만 ha입니다.

앞으로도 국유림에 산림관리인증 면적을 확대해나가며, 기업·개인 산주 등의 관심을 높이고 산림인증을 받은 임산물 제품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펄프종이기술: 펄프종이기술 독자들은 어느 정도의 펄프용 칩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 혹은 국산 펄프용 칩의 공급량이 증가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산목재의 이용증대를 위해 산림청도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국산펄프용 칩의 공급전망과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또한 산림산업 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펄프, 신문지, 인쇄용지, 골판지 등은 산림산업 통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펄프제지분야에 대한 산림청의 지원이나 정책지원 등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펄프제지산업이 더욱 산림산업의 규모 확대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의 정책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펄프제지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상섭: 국산 펄프용 칩 생산량 추이는 2021년 약 50만㎥, 2022년 29만㎥, 2023년 31만㎥으로 2022년 전년 대비 약 40% 하락하였으나 2023년에 소폭 상승하였고, 매년 전체 목재칩 생산량 중 약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임도, 고성능 입입기계 등 산림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순환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펄프제지산업 등에 필요한 국산목재의 원활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아울러 펄프제지 분야 연구개발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펄프제지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펄프종이기술: 최근 들어 목재분야에서 목조건축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과 같이 펄프제지분야에서는 탈플라스틱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바이오소재인 지류제품을 이용하여 식품포장재 등 생활필수소재에 대한 기술개발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중립소재로서의 종이제품 개발과 확대와 관련한 산림청의 정책지원이 가능할지요?

임상섭 청장: 산림청에서는 목재자원의 고부가가치 이용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펄프제지 분야 관련 여러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국내 유통 펄프를 활용한 나노셀룰로오스 대량생산 제조기술 연구를 추진하였고, 2024년부터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저탄소 기능성 목재

제품 개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국내 유통 펄프를 활용하여 셀룰로오스를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펄프제지 분야 연구개발 관련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펄프종이기술: 최근 학령인구감소와 의약계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인해 이공계 대학이 우수한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 및 임산분야 인재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림 및 임산분야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젊은 후속세대를 위해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상섭: 산림 및 임산분야는 탄소중립 시대에 있어 중요성과 잠재력이 아주 높은 분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중요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 플라스틱 등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소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탄소저장소재 목재에 대한 필요성 또한 더욱 주목받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산림과 임업 분야에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하길 기원합니다.

펄프종이기술: 바쁘신 중에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펄프제지산업의 기초원료가 되는 목재펄프의 원료공급 및 신기술개발에 진력하고 있는 국내 임업인 여러분과 산림청과 더욱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펄프제지산업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특히 종이 사용이 산림훼손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산림청과 함께 개선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임상섭 청장: 감사합니다, 펄프제지 등 우리 산림에서 나오는 목재가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대담: 펄프종이기술 편집위원장 이학래